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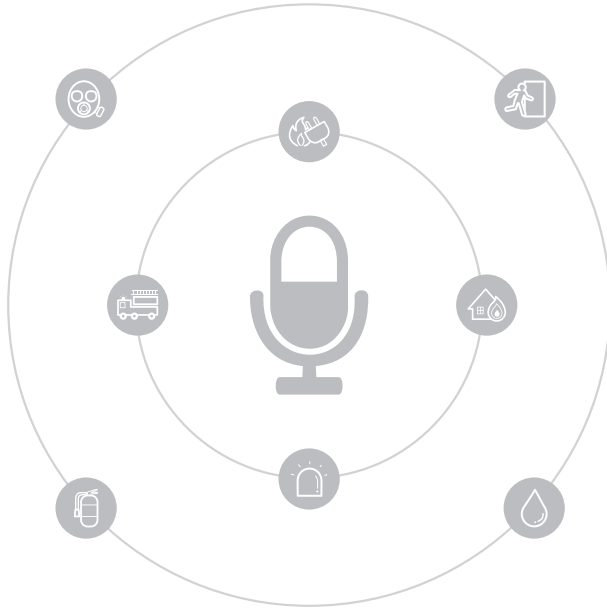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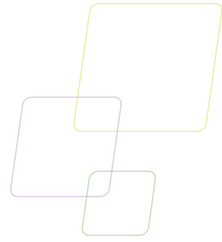
재난 보도

# 언어 사용 지침



국립국어원

#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



재난 보도는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도 경쟁,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재난 보도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보도 언어 사용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줍니다.

이 지침은 국립국어원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 세 곳과 종합편성채널 네 곳의 뉴스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마련한 재난 보도에서 지켜야 할 언어 사용 지침입니다.

## 01

### 근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

재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일본에서 사들인 중고 선박이긴 했지만 두 달 전에 실시한 안전 검사에선 별반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4. 4. 16.) ※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음.
- 선체 수색을 위해 500명이 넘는 잠수 요원과 첨단 구조 장비가 투입됐지만 악화된 기상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2014. 4. 16.) ※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음.
- 관련 기관들이 총출동한 전방위 압박 속에,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014. 4. 24.) ※ 누구에 의해 확인된 것인지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음.

**참고** '재난 보도 준칙' 제13조(유언비어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 02

### 추측 표현을 피하되, 사용할 경우에는 주체를 분명하게 밝힌다.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 구조 상황 등의 내용을 서둘러 추측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추측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추측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선체 진입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생존자가 발견이 될 수 있거든요. (2014. 4. 18.) ※ 생존자 발견 가능성에 대한 추측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
- 이의 절반 규모인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는 우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 4. 20.) ※ 상황을 서둘러 예측하고 있으며, 추측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

**참고** '재난 보도 준칙' 제14조(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03

###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형, 초대형, 최악의, 필사의, 너무’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부각하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장 표현은 뉴스를 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며, 재난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 온 국민은 지금, 바다 공포증에 떨고 있습니다. (2014. 4. 18.)  
→ 국민들은 지금 구조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약 한 시간 반 전부터는 조명탄을 투하하면서 지금 이 사고 해역 주변이 대낮처럼 밝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4. 4. 19.)  
→ 약 한 시간 반 전부터는 조명탄을 계속 투하하여 구조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자막> 4층 객실 등 진입 희생자 대거 수습 (2014. 4. 20.)  
→ 4층 객실 등 진입 희생자 00명 수습

## 04

### 구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재난 보도에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는’, ‘군 당국은’, ‘전문가들은’이라는 말보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해군’, ‘해경’처럼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구조 활동에 투입된 구조 인력에 대해 ‘육해공 총동원’, ‘가용 인원과 장비 모두 투입’과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

- 사고 직후,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2014. 4. 16.)  
※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모두’ 투입했다는 보도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표현임. 재난 보도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05

재난 상황을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재난 보도에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고 및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재난 보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표현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

- 미끄러진 자판기와 옷장, 짐들이 승객들과 뒤엉키기도 했습니다. (2014. 4. 16.)
-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두지 않은 음료 자판기 같은 짐기가 선실에 있던 승객들을 덮쳤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섰던 여행 가방도 둔기로 돌변했습니다. (2014. 4. 16.)
-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014. 4. 16.)

**참고** '재난 보도 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자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06

뉴스 전달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을 자제한다.

재난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뉴스 전달자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쉽게 동요될 수 있다. 따라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은 '모두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우리 학생들', '답답하다', '안타깝다' 등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4. 4. 16.)  
→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오후 8시가 지나면서 이 시각 바다는 야속하게도 깜깜한 상황입니다. (2014. 4. 16.)  
→ 오후 8시가 지나면서 이 시각 바다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 오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 4. 16.)  
→ 오늘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고** '재난 보도 준칙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07

###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재난 보도는 가능한 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뉴스를 접하는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 용어의 앞이나 뒤에 뜻을 풀어 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플로팅 도크' 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다고 하는데 (2014. 4. 18.)  
→ '플로팅 도크', 즉 해상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지선 형태의 대형 구조물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다고 하는데 ※ 실제로 엠비엔(MBN) 뉴스8에서는 플로팅 도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예) 바다 위의 조선소로 불리는 '플로팅 도크'
- 그런데 오히려 평형수를 줄이고 대신 화물을 더 실어 복원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2014. 4. 22.)  
→ 그런데 오히려 선박의 무게 중심을 맞추는 평형수를 줄이고 대신 화물을 더 실어 복원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 08

###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다만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내용일 때에는 표현에 더 유의해야 한다.

- 그렇다면 고등학생들 2학년짜리들이 많다고 하면 (2014. 4. 16.)  
→ 그렇다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 입을 닫고 줄행랑치기 바쁜 청해진해운의 오늘입니다. (2014. 4. 17.)  
→ 입을 닫고 도망치기 바쁜 청해진해운의 오늘입니다. ※ '줄행랑' 은 '도망' 의 속어임.
- [자막] 가족 등쳐먹는 파렴치 사기꾼들 (2014. 4. 21.)  
→ 가족에게 고통을 준 파렴치한 사람들



#### 도움받을 곳

- 국립국어원 가나다 전화(국어생활종합상담실) 1599-9979
- 상담 시간: 월~금, 9:00~18:00
-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의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국립국어원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



국립국어원